

2018
2019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TOGETHER.
TOMORROW.
EWhA



3

총장 인사

6

2018 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 현황 보고

12

기부자 인터뷰

- 곽삼근 명예교수
- 김순옥 회장
- 마희자 회장
- 최청규 동문 가족
- 주홍장학회

20

발전기금 소식

- 의과대학, 마곡 캠퍼스 시대 개막
- 이화사랑 소액기부캠페인 개시
- 이화아너스클럽 소개

28

행사 소식

- 초이 이화문학컬렉션 출판식
- 이화장학후원이사회 개최
- 대외협력처 소식

32

동창 소식

함께해요 이화인! 프로젝트

34

기금 안내

- 발전기금
- 장학기금

38

기부자 명단

- 고액 기부자 명단
- 전체 기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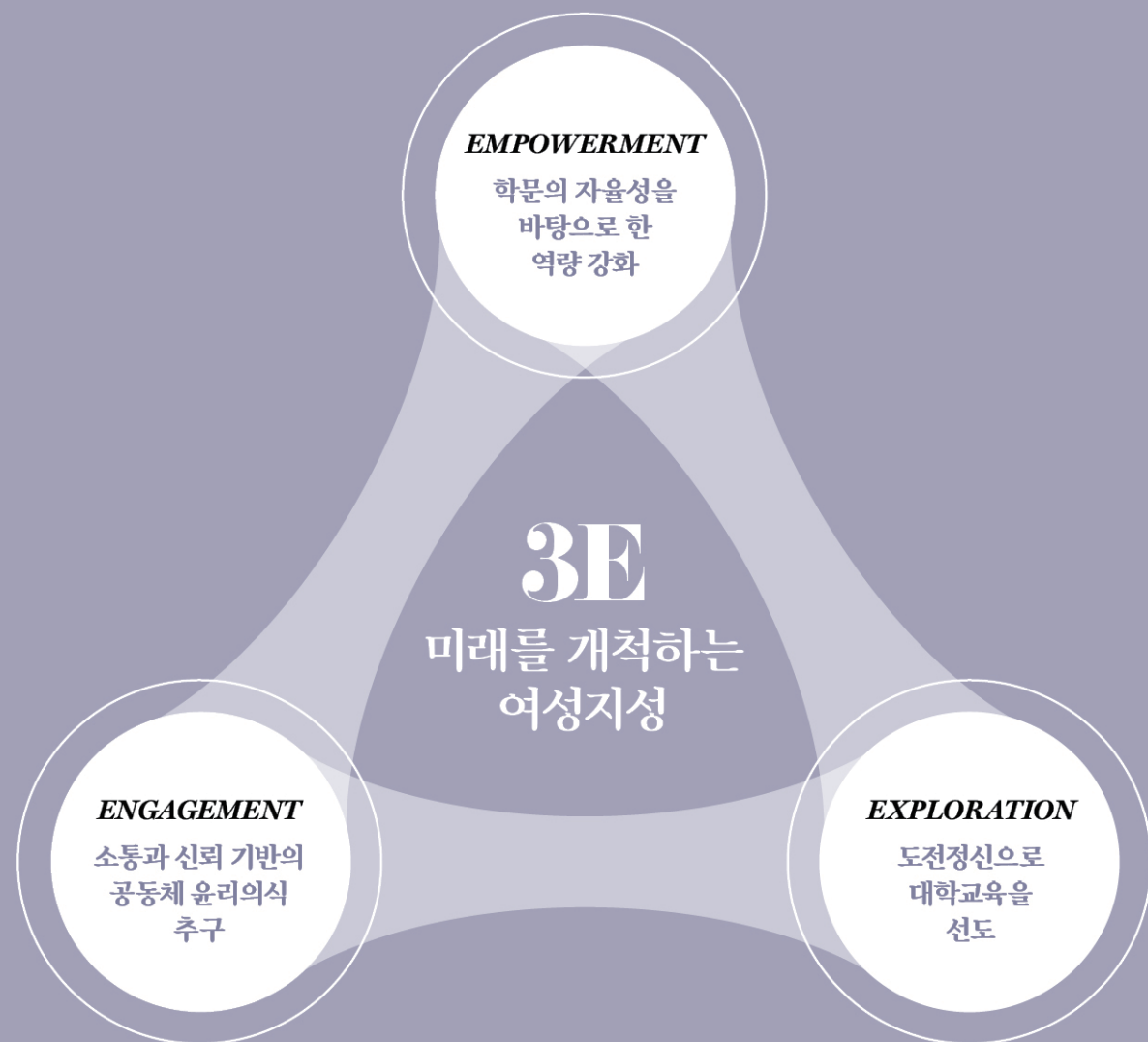
44

예우 안내

- 이화도너스월
- 후원자 예우

46

후원 안내



Together. Tomorrow. Ewha

미답의 연구영역을 개척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안하며 길을 만드는 것.

이화가 추구하는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지성'입니다. 미래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여성지성을 키우는 일에 후원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장 인사

4

다 함께,
미래로,
이화가
나아갑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역사의 전환점에서 이화학당은 독립운동의 요람이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하다 검거된 이화학당 학생 노예달에게 여자가 왜 이런 일에 참여했는지, 배후세력은 누구인지 판사가 묻자 노예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배운 결과 혼자 생각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이런 운동이 있으면 참여할 것이며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독립은 기쁜 일이다.”

그렇습니다. 주체적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도전정신, 공동체를 생각하는 헌신, 시대를 이끄는 여성지성은 이화의 DNA입니다. 저는 특히 이화를 위한 후원자 여러분의 헌신이 야말로 이화 DNA의 생생한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에 이화는 역경 속에서도 저력을 발휘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화는 디지털혁명의 전환점에서 미래를 이끄는 여성지성의 요람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 합니다. 저는 그 길을 과감한 융합과 젠더 관점의 심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합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세분화된 트랙으로 융합 전공의 틀을 만들어가고, 연구팀을 공모·선정하여 융합선도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를 심화하겠습니다. 여성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융합적 분석 틀에 기반한 지식 축적을 통해 성인지 통찰을 지닌 대안적 지식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세계적 거점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초석을 함께 놓아주시십시오. “이화, 다 함께, 미래로”의 기치가 잘 자리 잡도록 힘을 더해주시십시오. 이화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혜숙



당신의 마음속에 이화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성인재들이 이렇게 인적·물적으로 폭넓은 기반 위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대학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화만큼 여성 롤모델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도 없으며 여성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발전을 돕는 곳도 없습니다. 이화가 써나가는 세계 여성교육의 새 역사의 중심에 후원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화의 미래를 키우는 밑거름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 늘 기억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 현황 보고

아낌없이 보내주신 큰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자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화여자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화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과 사용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기간: 2018. 3. 1 ~ 2019. 2. 28

한눈에 보는 2018년 기부금 현황

약정액

91억원
(현물기부 포함)

입금액

114억원
(현물기부 포함)

사용액

206억원
(현물기부 미포함)

약정자 수

2,574명

약정 건수

2,66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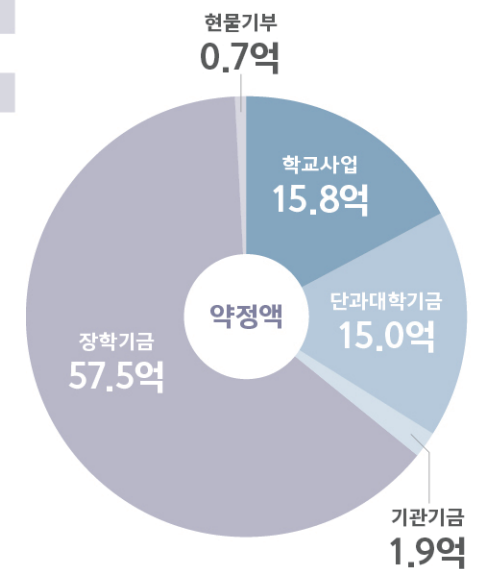
온라인 약정 비율

33%

모금 현황 (약정액 기준)

구분	세부항목	약정금액	비율
현금기부	● 학교사업	1,578,478,767	17.3%
	● 건축기금	5,415,482	0.1%
	● 단과대학기금	1,503,363,179	16.5%
	● 기관기금	190,901,111	2.1%
	● 장학기금	5,751,910,721	63.2%
합계		9,030,069,260	
현물기부	●	74,073,411	0.8%
총계		9,104,142,671	

2018년도에는 약 91억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약정자 수가 161명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약정비율도 21%에서 33%로 크게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모금된 발전기금은 57.5억원이 조성된 장학기금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습니다. 학교사업 발전기금도 약 15.8억원이 모금되어 17.3%를 차지했습니다.



● 학교사업

기금명	약정금액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1,240,868,557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	154,020,000
이화해피펀드	146,474,000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	22,567,210
Ewha Wave기금	14,549,000
계	1,578,478,767

● 건축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신축기숙사건립기금	5,415,482
계	5,415,482

● 단과대학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간호과학관건축기금	308,218,455
의과대학교육인프라 구축기금	199,000,000
조형예술대학발전기금	122,680,000
국제사무학과설립50주년 기념발전기금	116,250,000
식품공학과첨단실습실 구축기금	100,000,000
정책과학대학원발전기금	73,101,000
조형예술대학발전기금	65,296,170
약대건축기금	62,620,000
의과대학발전기금	50,000,000
의류산업학과기금	40,000,000
그 외 기금	366,197,554
계	1,503,363,179

● 기관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2018 김옥길기념강좌기금	65,000,000
Pfeiffer Fund기금	32,951,392
박물관기금	30,427,200
국제하계대학기금	19,687,368
EGEP씨앗기금	9,147,840
김옥길스승추모예배기금	6,535,652
패션디자인연구소기금	6,000,000
Dorothy Smith Estate 기금	3,021,339
도서관열람환경개선기금	3,000,000
여성과평화기금	1,000,000
그 외 기금	14,130,320
계	190,901,111

● 장학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개인 및 기관 후원 장학금	4,458,198,497
각 대학 및 학과별 동창회 장학금	472,164,919
선배라면장학금	203,953,421
EGPP장학금	617,593,884
계	5,751,910,721

입금 현황

구분	세부항목	입금액	비율	
현금기부	발전기금	● 학교사업	3,572,439,467	31.4%
		● 건축기금	293,616,589	2.6%
		● 단과대학기금	1,461,191,329	12.8%
		● 기관기금	241,681,111	2.1%
	장학기금	● 장학기금	5,744,706,698	50.4%
	합계		11,313,635,194	
현물기부	●	74,073,411	0.7%	
총계		11,387,708,605		

2018년도에는 총 114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중 장학기금이 전체의 50.4%인 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사업 발전기금이 35.7억원, 단과대학기금이 14.6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학교사업

기금명	약정금액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2,687,270,857
Innovation Ewha기금	542,591,400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	152,420,000
이화해피펀드	144,363,000
Ewha Wave기금	23,427,000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	22,367,210
계	3,572,439,467

● 단과대학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의과대학교육인프라 구축기금	193,119,700
조형예술대학발전기금	181,866,170
간호학과관건축기금	152,333,005
의과대학발전기금	121,968,400
국제사무학과설립50주년 기념발전기금	117,886,000
식품공학과첨단실습실 구축기금	100,000,000
약대건축기금	73,620,000
정책과학대학원발전기금	70,101,000
의류산업학과기금	40,000,000
의대연구기금	21,967,594
그 외 기금	388,329,460
계	1,461,191,329

● 건축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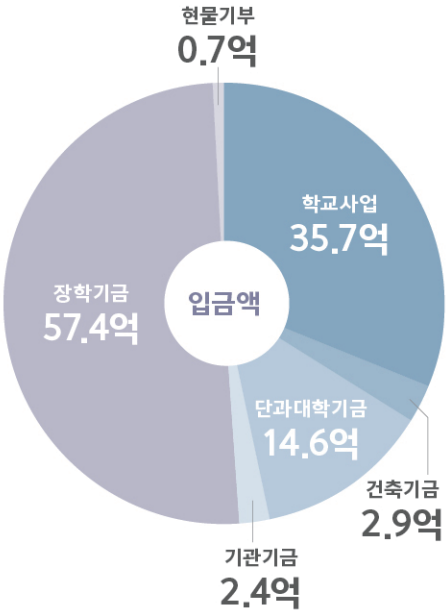
기금명	약정금액
신축기숙사건립기금	287,694,589
이화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	5,922,000
계	293,616,589

● 기관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2018 김옥길기념장좌기금	65,000,000
김정옥 이화-괴팅엔 국제교류기금	48,000,000
Pfeiffer Fund기금	32,951,392
박물관기금	30,427,200
국제하계대학기금	19,687,368
EGEP씨앗기금	9,147,840
김옥길스승추모예배기금	6,535,652
패션디자인연구소기금	6,000,000
Dorothy Smith Estate 기금	3,021,339
도서관열람환경개선기금	3,000,000
그 외 기금	17,910,320
계	241,681,111

● 장학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개인 및 기관 후원 장학금	4,505,006,274
각 대학 및 학과별 동창회 장학금	546,308,119
선배라면장학금	221,788,421
EGPP장학금	471,603,884
계	5,744,706,698



사용 현황

구분	세부항목	사용액	비율	
현금기부	발전기금	● 학교사업	9,221,850,045	44.7%
		● 건축기금	642,256,882	3.1%
		● 단과대학기금	4,697,626,522	22.8%
		● 기관기금	257,328,941	1.3%
	장학기금	● 장학기금	5,800,157,208	28.1%
	계		20,619,219,598	

2018년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미래의 교육인프라에 투자하는 학교사업 발전기금 사용액이 44.7%인 92.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마곡에 세워진 의과대학 새 캠퍼스에 의과대학발전기금, 이화미래의학연구기금,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 의과대학교육인프라구축기금 등 약 38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 학교사업

기금명	약정금액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8,213,274,725
Innovation Ewha기금	554,523,274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	154,278,562
이화-오투기어린이집기금	150,019,172
북한여성교육기금	64,161,179
이화해피펀드	34,099,000
윤후정 통일포럼기금	27,544,150
Ewha Wave 기금	23,949,983
계	9,221,850,045

● 단과대학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의과대학발전기금	2,080,000,000
이화미래의학연구기금	1,279,255,899
음악대학공간미래화 조성기금	388,386,813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	307,576,261
의과대학교육인프라 구축기금	143,363,701
경영대학발전기금	136,273,720
간호과학연구소발전기금	38,118,400
2013음악대학기금	29,297,599
국제사무학과설립50주년 기념발전기금	29,000,000
식품공학과발전기금	21,101,500
그 외 기금	245,252,629
계	4,697,626,522

● 건축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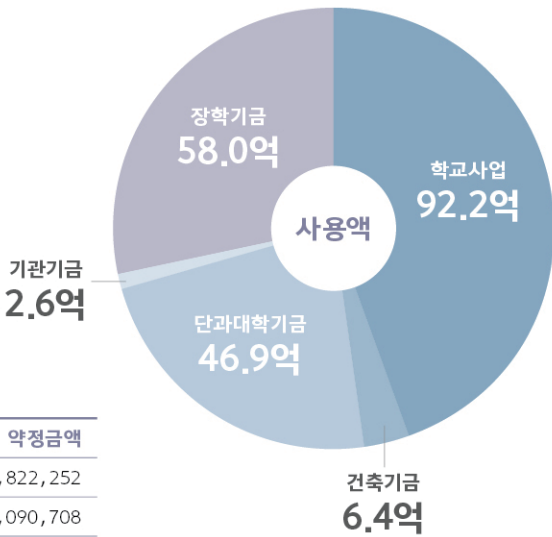
기금명	약정금액
신축기숙사건립기금	374,822,252
이화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	264,090,708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기금 외	3,343,922
계	642,256,882

● 기관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색채디자인연구소기금	116,059,000
이영희기금	86,579,000
김정옥 이화-괴팅엔 국제교류기금	35,999,996
인간생활환경연구소기금	4,660,625
이연희연극공연발전기금	1,000,000
그 외 기금	13,030,320
계	257,328,941

● 장학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개인 및 기관 후원 장학금	4,577,648,465
각 대학 및 학과별 동창회 장학금	644,581,160
선배라면장학금	242,598,487
EGPP장학금	335,329,096
계	5,800,157,208



후원자 분석 (약정액 기준)

기부주체별

기부주체	인원(명)	비율	약정금액(원)	비율
● 개인	2,340	91%	3,344,702,214	37%
● 기업/기관/단체	234	9%	5,759,440,457	63%
계	2,574	100%	9,104,142,67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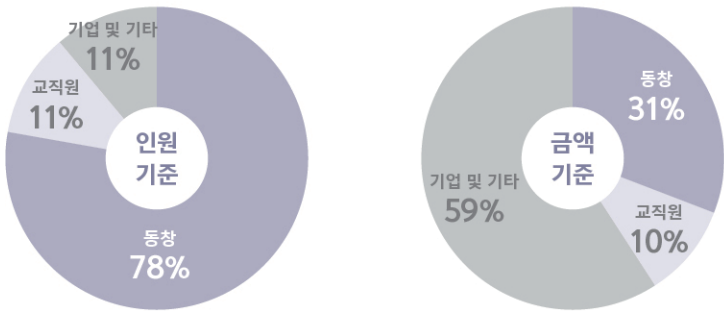
기부자 연령별(개인기부자에 한함)

기부자 연령	인원(명)	비율	약정금액(원)	비율
20대	208	9%	48,494,600	1%
30대	881	38%	196,216,000	6%
40대	418	18%	459,782,000	14%
50대	480	20%	570,441,485	17%
60대	237	10%	1,106,137,655	33%
70대	69	3%	735,725,379	22%
80대	25	1%	172,627,659	5%
무기명	22	1%	55,277,436	2%
계	2,340	100%	3,344,702,214	100%

2018년도에는 총 2,574명이 이화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이중 전체의 78%인 2,013명의 동창과 11%인 289명의 교직원이 36.9억원을 약정하여 이화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화관계별 현황을 보면 기업에서도 전체 금액의 59%인 53.9억원을 후원하여 이화의 발전에 큰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후원자 연령대에서 20대~40대 비율이 65%를 차지, 젊은 동창들의 참여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화관계별

이화관계	인원(명)	비율	약정금액(원)	비율
● 동창	2,013	78%	2,796,286,442	31%
● 교직원	289	11%	909,298,071	10%
● 기업 및 기타	272	11%	5,398,558,158	59%
계	2,574	100%	9,104,142,671	100%



약정금액별

약정금액	인원(명)	비율	약정금액(원)	비율
3백만원 미만	2,270	88%	801,336,947	9%
3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09	4%	549,616,855	6%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49	6%	2,727,399,083	3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1	1%	1,315,400,440	14%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4	1%	3,136,394,711	35%
3억원 이상	1	0%	573,994,635	6%
계	2,574	100%	9,104,142,671	100%

최근 3년간 모금 현황

약정 현황

연도	발전기금	장학기금	총계
2016년	317억원	55억원	372억원
2017년	219억원	57억원	276억원
2018년	34억원	57억원	91억원

입금 현황

연도	발전기금	장학기금	총계
2016년	114억원	57억원	171억원
2017년	162억원	57억원	219억원
2018년	57억원	57억원	114억원

어머니 통장에 담긴 100년의 스토리

나의 할아버지, 나의 어머니

2017년 8월 작고하신 어머니가 남기신 통장에서 곽 교수의 기부 스토리는 시작한다. 곽 교수의 조부는 독립운동가 곽대용 선생이다. 옥고의 후유증으로 해방 이듬해 돌아가셨고 매달 독립유공자 후손연금을 어머니가 받으셨다. 그런데 그 돈을 사사로이 쓸 수 없다는 어머니의 신념 하에 적지 않은 금액이 모아져 있었다. “통장은 제 관할은 아니었지만 ‘사회 환원’이라는 큰 정신적 유산을 받은 셈이지요.” 할아버지가 훌륭하게 사셔서 받은 것이니 우리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는 어머니의 유지는 곽 교수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켰다. “7남매 키우면서 엄마도 돈이 아쉬울 때도 많으셨을 텐데 시아버지의 뜻을 기리며 차곡차곡 쌓아온 어머니의 삶의 흔적이 커다랗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1주기 되기 전에 엄마가 할아버지를 기렸던 마음처럼 제가 이화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화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결심했지요.”

‘좋은 삶’을 꿈꾼다는 것

여성평생교육학자 1세대로서 여성주의와 평생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해온 곽 교수가 도달한 결론은 진학과 취직을 위한 교과 중심적 공부라 아니라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회에서 좋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십대에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를 간접 체험하며 길잡이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곽 교수가 이대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도 한 권의 책이었다. 의사 아버지를 따라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중, 고3 때 김활란 자서전을 읽고 ‘여성교육’에 눈을 뜨게 됐고,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감행하며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입학했다. 이화인을 위한 책 추천을 청하자 곽 교수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꼽았다.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는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자기 존재가치를 발휘하며 살면 좋겠다고 곽 교수는 “강추!”했다.

자기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발휘하길

곽 교수는 이화의 미래교육이 나아갈 바를 ‘인간미’에서 찾았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차별점이자 강점은 결국 ‘가장 사람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마음, 정신, 가치의 영역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화가 갖고 있는 저력은 대강당 채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대강당 채플을 통해 공동체를 의식하고 신을 의식하게 되죠.” 스피노자의 말처럼 “신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면면을 살피는 것”이다. 그것은 섬세한 시선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를 느끼는 미적 체험으로 이어진다. “어느 대학도 할 수 없는 이화만의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이화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화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부에는 스토리가 있죠.”

촬영 중간, 곽삼근 교수가 울조리듯 말했다. 2018년 5월, 곽 교수는 이화미래전략기금 1억원을 약정했다. 그 1억원은 남다른 100년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할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그에게로, 삶으로 감응한 100년의 기부 스토리. 여운은 묵직했지만 곽 교수의 눈빛은 밝고 목소리는 생기 넘쳤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뿜어내는 환한 에너지였다.



곽삼근

교육학과 명예교수 · 교육 75졸



김순옥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장 · 정책학과 19졸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만든다

여성 CEO의 이정표를 만들다

김순옥 동문(정책학과 석사 19졸)은 우리나라 여성 CEO 1세대이자 여성정책 변천사의 산증인이다. 복사와 커피 심부름이 여성의 주 업무였던 1970년 중반, 외국상사에서 선진화된 시스템과 비즈니스를 배운 그는 1980년에 텍스타일디자인 회사를 창업했다. 오늘날 중견 자동차부품업체의 대표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여성 CEO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80년대는 여자가,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서른살 미혼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다. “그때는 여자가 사업한다고 하면 무조건 남편의 보증을 요구했어요.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앞서 나간 선배들도 없었고요.”

그녀는 스스로 길을 만들기로 했다. “여성 CEO 기업은 환경적으로나 규모 면에서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했어요” 김 회장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이하 여경총)의 창립 멤버이자 제7대~10대 회장으로 9년간 여경총을 이끌며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제안에 발 벗고 나섰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많은 여성기업 정책들의 상당수가 여성경제인협회들의 작품이다. “일단 저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요, 후배 CEO들을 위해 이정표 하나 찍고 간다는 생각으로 열정을 쏟았어요. 금방은 안 되더라도 제안이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되면서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이 정말 보람 있고 즐거웠거든요.”

여성 리더들의 필수 관문은?

정책과학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장을 맡은 김순옥 회장. 2018년 12월에는 정책과학대학원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부해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이화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후원하게 된 계기는 단순해요. 첫째는 이화에 대한 사랑이고요, 둘째는 정책과학대학원이 능력 있는 여성리더를 더 많이 키워줬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여성임원 할당제를 제안하면, 관계 부처나 기업들은 임원 역할을 감당할 전문 여성리더가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고. 그래서 김 회장은 “우리 여성들이 리더가 되려면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면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이 임원급 리더가 되고 싶은 여성들이 꼭 거쳐 가야 할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장으로서의 자부심도 남다르다. “정책과학대학원이 올해로 21주년이 돼요.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동창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아직 동창회 조직은 미약한 편이에요. 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배들이 어느 분야, 어느 기업에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네트워킹에 힘쓰려고요”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여성리더들의 동창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녀. 40여 년에 걸쳐 제안하고 부딪치고 관찰시키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현실을 변화시켜온 김 회장다운 다짐이어서 더욱 신뢰가 간다.

인터뷰 말미, 앞으로의 꿈이 있냐고 물었다. “제가 사실 체력이 옛날 같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 여성들의 능력을 제대로 펼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 남은 힘을 보태고 싶어요” 여성을 위한 그녀의 연대의식은 참으로 크고 넓다. 김 회장이 일구어낼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의 변화가 자못 기대되는 이유다.

알프스에서 울려 퍼지는 나눔 메아리

투게더, 함께하면 가능한 기적

올해 ALPS동창회 회장에 선출된 마희자 회장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이화 여대 여성최고지도자과정(Advanced Leadership Program Society) 활성화에 기여한 이화 ALPS의 산증인이다. 그런데 마 회장은 오히려 ALPS에 와서 ‘여성 봉사정신’에 눈을 떴다고 고백했다. 이화 재학생들을 위해 기획하게 된 ALPS 기증바자회만 해도 전적으로 회원 기증으로 진행하면서 몇 달을 준비해야 하는 수고스러운 일이다. 올해로 벌써 19회를 맞이한 이 기증바자회를 통해 지난 18년 동안 장학금으로 기부한 금액이 8억원가량 된다.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여기 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걸 ALPS가 깨닫게 해주었죠. 같이 가는 ‘투게더’ 정신이요.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ALPS입니다.”

마희자에게 물어보세요

올해 마 회장이 기획한 ALPS 주최 자선패션쇼는 기부자가 직접 패션쇼 모델로 서는 독특한 콘셉트의 패션쇼이다. 패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취향을 나눔과 연결한 것이다. 마 회장은 특히 ALPS 합창단의 활동을 강조했다. 결식아동·유방암 환자·루프스 환자·미혼모 돕기 등 국내 자선음악회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 및 아프리카·캄보디아 돕기 등 해외 활동까지, ALPS 합창단은 국내외를 누비며 나눔의 노래를 부른다. ALPS는 이화를 위해서도 각종 장학금 및 건축기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왔다. “솔직히 자선패션쇼 티켓 한 장 팔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ALPS 동문들은 나눔과 봉사라면 기꺼이 동참하죠. 오히려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천국에 갔을 때 착한 일 뭐 했냐고 물으면 ‘저는 기부하라고 시키는 대로 내서 잘 몰라요, 마희자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대답할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해요. 이렇게 순수한 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자 큰 행복이에요.”

‘여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향한 꿈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이화를 후원해온 마 회장은 2018년 12월 이화미래전략기금으로 3천만원을 후원하면서 1억원 이상 후원한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회원이 되었다. “ALPS에서 배운 나눔을 개인적으로도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ALPS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배웠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깨닫게 되었죠. 지인들에게 이화 ALPS 하자고 권하는데 요즘엔 아너스클럽 하라고 추천 목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토록 이화 ALPS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마 회장의 바람은 무엇일까? “ALPS가 더 활성화되어서 ‘여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더욱 앞장서 실천하며 더 많은 여성들을 후원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의 진달래빛 재킷 앞섶에 달린 하얀 배꽃 브로치가 이화 ALPS에 대한 마 회장의 사랑을 상징하듯 환하게 빛나 보였다.



마희자

이화 ALPS동창회 회장·서진공방 대표

ALPS는 1995년에 설립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이다. ALPS 3기로 입학하여 수료한 지 23년, 인생의 삼분의 일을 ALPS와 함께한 마희자 회장은 ALPS를 ‘알프스’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자신의 이야기보다 ALPS 동문들에 대한 자랑으로 들떴다. 마치 자식 자랑하는 엄마처럼 ALPS와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인터뷰 내내 유쾌하게 고백했다.

추석을 앞둔 초가를 캠퍼스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100세를 맞은 방숙자 동문(가사와 42졸)과 딸 최청규 동문(영문 65졸), 외손녀 광상희 동문(영문 92졸) 등 이화 3대 가족이 오랜만에 모교 나들이에 나선 것.

딸 최청규 동문은 “2018년 10월에 어머니가 100세 생일을 맞으신다. 어머니 백세를 기념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방문 계기를 밝혔다. 이들 이화 3대 가족은 김혜숙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교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현우3대모녀장학금 3천만원을 약정했다.

100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한 걸음으로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방숙자 동문은 “딸과 외손녀까지 3대가 이화를 나온 것은 인생의 큰 보람”이라고 자부심을 보였다.

최청규 동문은 졸업 후 20여 년간 본교에서 영문학 강사로 활동했고 만딸인 광상희 동문은

영문과 졸업 후 IBM을 다녔다. 이들 3대 모녀는 이화 동문이라는 점 외에도 남편이 모두 대학교수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서로 잘 통한다고 한다.

최청규 동문은 “모녀 3대가 모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면서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이화가 우리에게 준 값진 유전자”라면서 “이화 팬인 남편은 이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딸에게 무조건 이화대학에 가야 한다고 저보다 더 권할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3대인 광상희 동문은 “아버지의 이화사랑 덕분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와 생활비를 받으며 공부하는 행운을 누렸다”면서 “졸업 후 사회생활

을 할 때 남녀공학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여성리더십과 역량을 이화에서 배웠음을 알게 됐다”고 이화 예찬론을 폈다. 특히 광 동문은 “제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학교 운동장에 방을 붙여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할머니를 학교에 모시고 와서 합격자 방 앞에서 사진을 백장 넘게 찍으며 3대 이화 가족의 탄생을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아들만 둘이라 이화 4대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고 말해 웃음꽃을 피웠다. 먼 훗날 집안의 유일한 손녀가 이화여대에 입학해 4대 동창이 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이화 3대 가족. 그들의 이화사랑은 3대에 걸쳐 경쾌하게 흐른다.



이화 3대 가족, 100세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기부

최청규 동문(영문 65졸)

겨울과 봄의 경계인 2월 말, 쌀쌀함이 가시지 않은 교정에 약학대학 동문들이 대거 모였다. 여고동창회마냥 왁자지껄 익숙한 수다와 흥이 넘쳐나는 현장. 바로 약학대학 소속의 주홍장학회 모임이다.

**주홍장학회가 아주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처음 만들어진 계기가 있나요?**

정준순 회장(약학 72졸) 1982년에 약대동창회 임원간사회에서 각 기수별로 장학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주홍장학회가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가네요. 1984년 1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년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학기당 300만원씩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180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주홍장학회는 우리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주홍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하현주 약학대학장 학창시절 가슴에 달고 다니던 배지 색깔이 주홍색이었어요. 약학대학 상징색인데, 우리가 모두 약대 출신이라 장학회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정열의 색이라 그런지 주홍장학회 분들 모두가 열정적이고 활달하고 모든 일에 열심이에요.

주홍장학회 참여 소감은?

김경옥 동문(약학 72졸) 사실 ‘약국’이라는 공간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약사를 직업으로 삼다 보니 절로 베풀고 돕는 마음이 몸에 배는 것 같아요. 약대 선배님들의 크고 넉넉한 마음 씀씀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우리 주홍장학회의 최고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강희 동문(약학 66졸) 가끔 신문이나 TV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연고도 없는 이웃대학에 쾌척하는 기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모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먼 데 안 가고 힘 안 들이고 ‘장학이사’ 타이틀도 달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어서 정말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동문(약학 88졸) 저는 옛날에 수혜자였다가 지금은 후원자가 된 사람입니다. 학생 때 주홍장학금을 3번이나 받게 돼서 학업을 마치

는 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졸업 후 감사한 마음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생각을 했지만 실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한참 나이 든 뒤에 주홍장학회를 알게 되어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용재 동문(약학 82졸) 사람들은 “기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한 기부란 지갑보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귀한 돈을 나눠줄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정준순 회장 선한 씨앗을 뿌린 선배님들과 동창들이 계셨기에 주홍장학회라는 사랑의 열매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큰 수목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위안을 주듯 주홍장학회도 앞으로 더 발전해서 더 큰 나눔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홍에 물들다

약학대학 주홍장학회

의과대학의 새로운 비상, 마곡 캠퍼스 시대 개막



2018년 11월 12일(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의과대학 및 이대서울병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최첨단 교육·연구 시스템을 갖춘 ‘의과대학 새 캠퍼스’와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 병원 ‘이대서울병원’ 건립으로 미래 여성 의학자 양성의 새 시대가 열린 것. 또한 한국 최초 여성 전용병원이자 여성 의학교육기관의 효시인 ‘보구녀관(普救女館)’을 복원, 한국 여성의학 132년의 역사를 되살렸다.

최첨단 의학 교육 인프라 구축

2014년 12월 30일 착공, 4년간의 공사를 거쳐 2019년 3월, 드디어 의과대학의 새 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2019학년도 1학기에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의과대학 새 캠퍼스는 대지면적 3,000평 규모에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건립됐으며,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최첨단 강의실과 의학도서관, 의과대학 전용기숙사 등을 갖췄다. 또한 동시통역시설이 갖춰진 강당, 국제회의실 외에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화시뮬레이션센터, 태블릿PC로 의학시험을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평가시스템, 온라인 기반의 러닝 플랫폼인 교수학습관리시스템 등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 의학관 건물은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이자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터(본명 김점동)를 기려 에스더빌딩으로 명명됐다.

미래를 선도할 여성 의학자 양성에 새 전기 마련

김혜숙 총장은 “1887년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보구녀관’은 차별의 벽을 허물고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기초가 되었다”며 “마곡 캠퍼스의 개막으로 첨단 의학교육과 연구의 새 시대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희 의과대학장 역시 의학관 건립으로 첨단 의과대학 연구 및 융·복합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메디컬 콤플렉스가 갖춰진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이화여대 의과대학이 선진적 융합연구들을 잉태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과대학 발전기금은 의과대학 발전의 소중한 디딤돌”이라면서 의과대학 첨단 인프라와 의과대학 기숙사, 의학도서관 구축에 사용되는 의과대학 교육인프라구축기금에 이화가족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환자 중심 스마트 병원, ‘이대서울병원’ 문 열어

- 국내 최초 중환자실 1인실, 기준 병실 3인실 도입
-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임상통합상황실 운영

이대서울병원이 2019년 5월 23일(목)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로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이대목동병원과 함께 양병원 체제를 갖추고 진정한 환자 중심의 의술을 펼칠 계획이다. 지하 6층·지상 10층, 1,014병상 규모의 이대서울병원은 첨단 의료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이다. 국내 최초로 전체 중환자실 1인실, 기준 병실 3인실로 설계되었고, 환자 생체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임상통합상황실과 스마트 터치 패널로 제어하는 스마트 수술실을 도입하여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5대 암, 심뇌혈관질환, 장



기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 치료를 특화한 이대서울병원은 환자 중심의 설계와 첨단 의료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치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과대학 교육인프라구축기금

의과대학 교육인프라구축기금은 마곡 새 캠퍼스에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 최첨단 연구기반 시스템을 확보하여 세계 여성의학 선도하는 의학 교육기관으로 비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용도

- 의과대학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
- 의과대학 전용기숙사(179명 수용), 의학도서관

후원방법

- 자유후원 (금액 제한 없음, 분할 납부 가능)

후원자 예우

- 의과대학 후원 감사장 및 의과대학 소식지 발송
- 의과대학 로비 후원자기념판에 이름 남김
- 의과대학 강의실·실험실·기숙사에 각 실별 현판 부착

300만원 이상	메인 로비 후원자기념판에 등재
3천만원 이상	세미나실 현판 부착
5천만원 이상	중형강의실 현판 부착
1억원 이상	계단식강의실 현판 부착

* 후원자는 의과대학 예우 및 이화여자대학교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는 45쪽을 참고해주시고.



이화를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 ‘이화사랑 소액기부캠페인’ 개시

대외협력처는 2019년 1학기부터 ‘이화사랑 소액기부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
‘이화사랑 소액기부캠페인’은 최소 월 1만원으로 이화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화해피펀드’, ‘선배라면장학금’, ‘Ewha Wave 기금’을 모금하는 사업이다.

3인 3색의 십시일반 소액기부

최유미 대외협력처장은 “해피, 선배, 웨이브, 이 세 가지는 우리 이화의 대표적인 소액기금이다. 모두 예전에 출시됐지만 셋을 한데 묶어 소액기부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각 학생복지, 장학금, 학교발전 등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후원자가 원하는 기금을 선택해 월 1만원으로 누구나 쉽게 후원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시작된 ‘이화해피펀드’는 재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학생복지기금이다. 2010년에 출시된 ‘선배라면장학금’은 이화의 가장 대표적인 소액기금으로 유명하다. 모금액은 학과별로 집계되어 후원자의 과 후배들에게 매 학기 바로 지급된다. 23만 이화가족의 거대한 물결, ‘Ewha Wave 기금’은 2015년에 시작된 학교 발전기금이다. 모금액은 이화가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성장 에너지로 사용된다.

월 1만원으로 누구나 이화사랑

소액기부캠페인은 큰 부담없이 월 1만원으로 이화사랑에 동참할 수 있어 구성원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 대외협력처는 40~50대 졸업생들에게 ‘이화사랑 소액기부캠페인’ DM을 우편 발송했고, 교내에는 대학·대학원별로 방문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최유미 대외협력처장은 “이화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이화가족의 관심과 사랑”이라면서 “자랑스러운 이화를 만들기 위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 복지

이화해피펀드 이화인의 행복 충전 프로젝트

이화의 재학생들이 심리적·경제적·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복지기금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이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금용도
•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생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교환학생 생활비 지원 등

정기후원
월 1구좌(10,000원) 이상



장학

선배라면장학금 이화 선배가 만드는 사랑의 기적

‘이화의 선배라면 누구나 한 달에 만원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0년에 시작한 장학금입니다. 이화 선배들이 만드는 사랑의 장학금, 선배라면으로 후배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기금용도
• 학과 후배들에게 매 학기 장학금 지급
•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

정기후원
월 1구좌(10,000원) 이상



학교 발전

Ewha Wave 기금 23만 이화가족의 거대한 물결

Ewha Wave 기금은 이화사랑의 작은 물결을 모두 모아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가는 학교 발전기금입니다. 이화의 성장 에너지, Ewha Wave 기금에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금용도
• 융·복합 미래 인재 육성
• 글로벌 교육 환경 구축
• 세계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

정기후원
월 1구좌(10,000원) 이상



“이화와 나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

이진영 동문(교육 04졸·멀티캠퍼스 근무)

‘이화사랑 소액기부캠페인’에 제일 먼저 참여 하셨죠? 지난 1월 말에 모교에서 보내준 ‘이화사랑 소액기부캠페인’ 안내 우편물을 받았어요. 너무나 낮은 대강당 사진이 찍힌 모교 소식이 어찌나 반갑고 좋던지...! 바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문자로 보냈는데, ‘이화사랑 1호’에 당첨됐다니 영광입니다.

‘이화사랑 1호’일 뿐만 아니라 소액기부 3층을 모두 후원해서 ‘이화사랑 3관왕’이 되셨어요. 3개 기금에 모두 후원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기금 하나당 월 만원씩이라 금액 부담이 적었어요. 매달 3만원이니까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서 한 달에 밥 한 끼, 커피값 한 번 아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조금 세속적인 저로서는 월 3만원의 작은 금액으로 모교에 기부도 하고 세제혜택도 받으니 1석2조다 싶었죠.(웃음)

3개 기금에 모두 후원하신 걸 보면 애교심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정반대예요. 솔직

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던 애교심 ‘제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화사랑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이화가 내게 얼마나 큰 후광인지, 이화라는 존재 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저와 이화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임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죠. 비록 소액이지만 저는 평생 후원할 생각입니다. 이화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임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게거든요.

사랑과 나눔의 리더, 이화아너스클럽 Ewha Honors Club

이화아너스클럽은 이화에 큰 사랑을 전해준 고액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2년에 발족한 이화의 고액 기부자 클럽이다. 품격 있는 문화행사와 특별한 예우프로그램, 사회 리더들의 소중한 만남의 장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이화아너스클럽! 이화의 아름다운 동반자, 이화아너스클럽의 세계로 안내한다.

소중한 당신을 위한 특별예우

이화아너스클럽은 이화발전기금 1억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감사와 예우를 드리는 기부자 클럽이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291명이 이화아너스회원으로 위촉되어 이화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아너스클럽은 이화 眞(10억원 이상 후원), 이화 善(3억원 이상 후원), 이화 美(1억원 이상 후원)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교는 이화를 위해 큰 사랑을 전해준 고액 후원자들에게 보다 품격 있는 예우로 보답하기 위해 매 학기 명사특강·문화탐방 등의 다채로운 행사 초청과 신규회원 건강검진권, 회원패 증정, 근조기 서비스 등 아너스클럽만의 특별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이용 예우(납입액 기준)의 경우 건강검진 시 이화 美 회원은 검진비의 50%, 善 회원은 80%, 眞 회원은 100% 등 회원 자격에 따라 할인 예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영은 교수
(인하대 교육대학원)

“

아너스클럽은 보람이죠.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좋은 모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문화행사로 꾸며져 늘 신선한 재미가 있어요.

”



김영욱 동문
(교육공학과 70졸)

“

특별한 기쁨입니다. 후배들을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이화를 보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아너스클럽 행사 안내가 오면 늘 기대감으로 설레요. 일상에 묻혀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해줘서 고맙지요.

”



이광자 명예교수
(간호학과)

“

이화여대에서 아너스클럽 멤버들을 알아주는 느낌이 들어 감사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스럽기까지 해요. 그런 세밀한 정성과 예우는 이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

겸손한 나눔, 빛나는 품격

아너스 회원들에게 이화아너스클럽은 어떤 의미일까? 이광자 간호학과 명예교수는 “이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교의 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편의 은퇴 기념으로 장학금을 학교에 맡겼는데, 후배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대신 해줘서 좋다”고 후원소감을 밝힌 김영욱 동문(교공 70졸)은 “아너스클럽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행사와 예우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크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나눌 수 있음을 기뻐하는 아너스클럽 회원의 모습에서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리더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후원자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이화아너스클럽이다.

이화아너스클럽 문화행사

2018 이화아너스클럽 명사특강

‘국악, 그림에 스며들다’

2018년 10월 24일(수) 가을 빛깔 완전한 아령당에서 이화아너스클럽 명사특강 ‘국악, 그림에 스며들다’를 개최했다. 1부는 최준식 한국학과 교수가 김홍도의 ‘포의풍류도’에 대해 강의했고, 2부는 송혜나 한국학과 초빙교수가 10폭 병풍 ‘평양도’를 소개하며 고전 판소리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을 단풍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향연에 아너스클럽 회원인 구혜정 동문(정외 71졸)이 안숙선 명창에게 사사한 ‘진도아리랑’을 즉석에서 선보여 멋과 감흥을 더했다.



2019 이화아너스클럽 명사특강

‘세계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와 스타들’

2019년 4월 17일(수) 세일아트홀에서 봄맞이 이화아너스클럽 명사특강 ‘세계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와 스타들’ 행사가 열렸다. 친근한 목소리, 즐겁고 명쾌한 클래식 해설로 유명한 장일범 평론가는 “저희 어머니와 고모, 여동생이 모두 이대 불문과 출신으로 인연이 매우 깊다”면서 요즘 가장 뜨겁고 인기 높은 공연만 엄선해 재미있는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했다. 아너스클럽 회원인 윤금희 건반악기전공 명예교수는 “이처럼 재미있게 클래식 음악을 소개해주는 분이 있어 감사하다. 매우 흡족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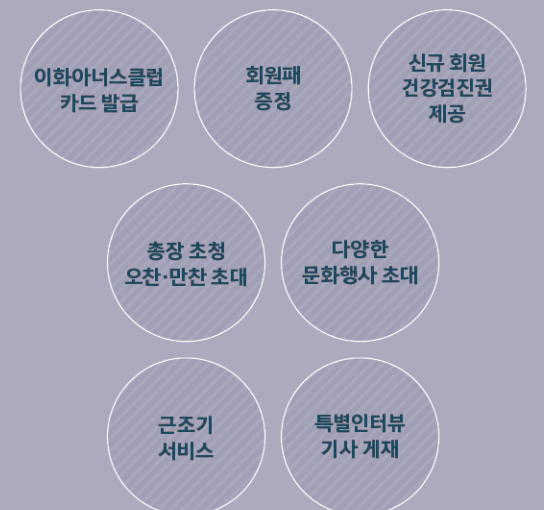
이화아너스클럽 특별 예우

이화아너스클럽 회원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성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뜻에 이화는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원자격



예우 프로그램



의료원 이용 예우

		이화美	이화善	이화眞
건강검진	본인·배우자	50%	80%	무료
	직계존비속	40%	60%	90%
진료비감면 (본인부담금)	본인	30%	40%	60%
	배우자	10%	20%	50%
영안실이용	본인	20%	50%	무료
	배우자	10%	20%	30%
외래, 입원 우선권		●	●	●

※ 이화아너스클럽 특별 예우 프로그램은 최소 약정액의 20% (2천만원) 이상 납입 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원 이용 예우는 납입액 기준입니다. 자세한 예우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함께 빛나는 이화! 우리에게는 이화가 있습니다

133년의 세월 동안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이 땅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이화가 또 한 번 미래를 개척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초연결의 시대,
융복합적 역량을 강화할 최적의 기반을 이화가
만들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애정과 응원에
이화가 변화로 화답하겠습니다.

이화 문인들 작품이 한자리에

초이 이화문학컬렉션 현판식

대외협력처는 2018년 10월 11일(목) 오후 2시 중앙도서관 3층에서 '초이 이화문학컬렉션' 현판식을 개최했다. 초이 이화문학컬렉션은 평생 시인이자 이대 동창문인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김양식 동문(영문 54졸)이 이화 문인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는 이화발전기금 5억원을 후원함에 따라 중앙도서관 3층 317호에 조성됐다. 컬렉션 명칭인 '초이'는 김양식 동문의 아호이다. 이 컬렉션에는 원로 작가뿐만 아니라 김채원, 배수아, 권지예, 조남주 등 신진 작가까지, 쟁쟁한 70여 명 이화동문 문인들의 작품 1,058권이 소장되어 있다.

김혜숙 총장은 축사에서 “우리 이화 문인들의 정신과

맥을 집대성한 컬렉션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이화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큰 선물을 남겨주신 선생님의 소중한 뜻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양식 동문은 인사말에서 “많은 이화 동문이 문단 활동을 하며 한국 문학을 빛내고 있다. 후배들이 이런 선배들의 열정을 본받아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 또한 “이대동창문인회의 오랜 숙원을 이루어 비로소 후배들에게 댈 수 있게 됐다. 이 감사패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이 생애 가장 기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혀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혜숙 총장, 정문종 대외부총장, 장운재 교목실장, 차미경 중앙도서관장을 비롯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이정자 이대동창문인회 회장 및 임원단, 송기정 불문과 교수, 정끝별 국문과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해 초이 이화문학컬렉션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이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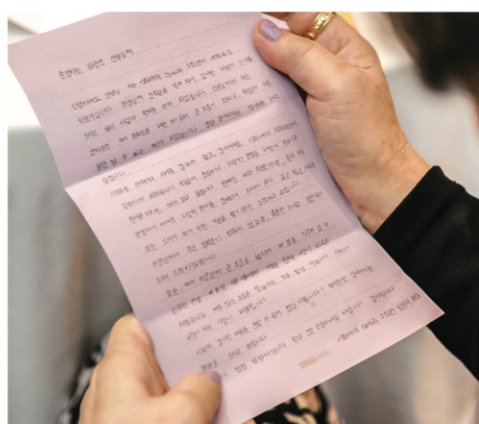
제11회 이화장학후원이사회 개최

대외협력처는 2018년 9월 20일(목)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제11회 이화장학후원이사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화장학후원회는 2001년 동창, 교직원을 비롯해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이화가족이 21세기 한국 사회 및 세계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설립됐다. 대외협력처는 5천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약정한 후원자들을 후원회 이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총 231여 명의 후원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신규이사는 10명으로, 신승애 본교 명예교수, 장선 인촌재단 전 이사장이 수여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김혜숙 총장은 “이사회 여러분 덕분에 이화의 학생들이 따뜻한 변화를 경험하고, 밝은 내일을 꿈꾸게 되었

다”고 감사를 전하고 장학생들에게는 “선배들의 선행의 씨앗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하는 멋진 이화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옥 장학금을 받고 독일 어학연수를 다녀온 장학생 대표 천은빈 씨(독문·17)는 “해외 연수가 내게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후배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0년부터 장학금을 후원해온 권경수 명예교수는 “저도 장학금 수혜를 받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며 “선배가 후배에게, 교수가 제자에게 서로 정을 나누는 긍정반응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는 김혜숙 총장을 비롯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선옥 전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장학후원이사진들과 장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후원자와 장학생이 오찬을 함께 하며 서로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학생들이 나눔의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화 출신 CEO들의 특별한 만남 이화 CEO 총장 초청 만찬

김혜숙 총장이 2018년 5월 24일(목) 총장공관에서 '이화 CEO 총장 초청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7학번에서부터 2010년에 입학한 10학번 동창까지 폭넓은 세대에 걸친 40명의 동창 CEO가 참석해 여성 CEO로서의 고충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총장공관의 짙은 녹음과 어우러진 곁은 아 음악대학 교수팀의 〈이화국악양상불〉 공연이 펼쳐진 후, 이날 만찬의 하이라이트인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38년 만에 모교를 찾았다는 이영미 동문(과교 80졸·(주)세미성 대표)은 “현대와 고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교정에서 이화의 유전자를 재확인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이숙 동문(영문 82졸)은 “이화는 디자인 부분에서 굉장히 인재도 많고 강하다”면서 “앞으로도 이화가 만들어준 텃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농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동문 CEO들은 “여자는 여자가 돕고, 이화는 이화가 도와야 한다”는 사실

에 서로 깊은 공감대를 나누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 이화출신 CEO로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다짐했다. 한편, CEO 총장 초청 만찬을 계기로 5개월 뒤인 10월 30일(화)에 ‘이화비즈’가 창립되는 성과를 낳았다. 이화비즈는 전문직이나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리더 및 중간 간부급 이상의 동문 네트워크로, 창립멤버는 총 84명이다. 회원 워크숍과 후배들을 위한 인턴십·멘토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혜숙 총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동창 CEO들을 만날 때마다 이화 출신 CEO모임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아 특별히 마련한 자리”라며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동창 CEO들 간의 활발한 상호 네트워킹은 물론 모교와도 상호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졸업 30년, 이화 동창 과대표들 ‘올해의 이화인’ 총장 초청 만찬

2018년 10월 15일(월) ECC 이삼봉홀에서 ‘올해의 이화인’ 총장 초청 만찬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80~84학번 동기들로 2014~2018년에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 80여 명이 함께해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학교가 ‘올해의 이화인’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혜숙 총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여러분이야말로 졸업 후 30년간 이화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여 과대표로 선출된 진정한 의미의 메이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기수

를 뛰어넘어 전체 ‘올해의 이화인’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은 물론 모교와도 상호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훈순 대외협력처장은 “이화가 다시 힘을 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힘내라, 이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축하공연과 만찬 후, ‘올해의 이화인’ 기수별 대표가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햇병아리”라고 밝혀 웃음을 준 윤혜신 동문(기독 88졸)은 “53명의 동기들이 하루 600개의 깨

특을 나누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 올해의 이화인’ 피상순 동문(의학 84졸)은 “개구리가 겨울잠 자고 난 후 팔짝 뛰어오르듯이 이화도 그렇게 도약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 ‘올해의 이화인’들도 함께 빛나는 이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소설가로 활동 중인 ‘2014 올해의 이화인’ 김다운 동문(외국어교육 84졸)은 “이화인으로서는 정체성을 나누고 이화의 이미지를 새로 구축하는 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올해의 이화인’은 1991년부터 총동창회 주관으로 창립기념일에 열리는 ‘동창의날’ 행사에 졸업 30주년을 맞는 동문 중에서 매년 각 과에서 1명씩, 50여 명씩 추대되는 동창대표들이다. 각 기수별 ‘올해의 이화인’들은 이날 모임에서 앞으로 기수를 넘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이화에 빛과 소금이 되는 ‘올해의 이화인’으로 발전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제3세계로 퍼져나가는 이화 정신 EGPP 후원회 총장 초청 오찬

2019년 1월 18일(금) ‘EGPP 후원회 총장 초청 오찬’이 열렸다. 이날 오찬은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이하 EGPP) 장학금 후원자와 미래 후원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GPP의 비전과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EGPP는 2006년 이화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개발도상국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1886년 이화의 시초가 된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정신을 본받아, 이화가 축적해온 우수한 교

육역량을 전 세계 여성들에게 환원하는 이화의 대표적인 전액 장학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EGPP 입학생은 39개국 총 256명. 2018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학부생 31명, 대학원생 24명이 이화에서 수학 중이다. 한 학기당 EGPP 장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천만원으로 연간 총 9억원의 운영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중 후원금 비율은 20%대에 못 미치고 있다. 대외협력팀 장학금 담당 강혜송 대리는 “EGPP 장학생 과반수 이상이 평점 평균 3.7

이상의 성적을 거둘 정도로 우수하다”면서 “제3세계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뜻깊은 사업에 후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함께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원조 받다가 주는 최초의 나라가 됐듯이 이화의 EGPP 장학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안진희 동문(관현 76졸)은 “EGPP 장학생 1명이 졸업할 때까지 기쁘게 후원하겠다”며 EGPP장학금 4천만원 후원을 즉석에서 약속해 감동을 선사했다.



김혜숙 총장은 “EGPP 장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 친한파 여성리더로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그 나라 여성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사회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며 “요즘 예술문화계의 ‘한류’ 바람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이화의 EGPP야말로 교육계의 진정한 한류”라고 자부심을 보였다.

함께해요 이화인! 프로젝트

이화 캠퍼스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이화동창들이 뭉쳤다! 작년 연말 소모임 지원 캠페인 ‘모여라 이화동창, 이화가 쏜다!’를 시작으로 지난 5월 특별한 홈커밍데이 ‘모여라 이화동창’까지, 대외협력처에서 마련한 이화동창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2019 모여라 이화동창’ 개최

대외협력처(처장 최유미)는 5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ECC 이삼봉홀 등 교정 곳곳에서 ‘2019 모여라 이화동창’ 행사를 열었다. ‘모여라 이화동창’은 이화 동창들이 모교를 방문해 하루 동안 대학생활을 경험해보는 홈커밍 프로그램이다. 올해가 2회째로 83학번부터 12학번까지 80여 명의 동창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추억의 대강당 〈채플〉을 시작으로, 조형예술학부 김남시 교수의 〈사물과 미술〉 강연이 이어졌다. 5월의 아름다운 교정을 돌아보는 〈캠퍼스 탐방〉은 이화역사관 관람, 교내 캠퍼스투어, 이화의 꽃과 나무 투어 등 3개 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인 〈이화인 우리들의 이야기〉에는 김혜숙 총장, 최대석 대외부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임원진이 참여해 동창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김혜숙 총장은 “우리 이화동창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다른 대학 여자동창들이 부러워한다”고 전하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동창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3월에 새로 선임된 남상택 총동창회장(물리 74졸)은 “앞으로 선배들의 연륜과 지혜, 젊은 동창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함께 소통하는 열린 총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30년 만에 모교를 방문했다는 김수진 동문(법학 90학번)은 “행사 참석을 위해 전주에서 새벽 5시에 버스를 탔다. 친정에 온 느낌이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고, 조은정 동문(중문 06학번)은 “고향처럼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사회생활을 할 때 에너지가 된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사에 참가한 동창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학교 발전기금인 Ewha Wave 기금으로 사용된다.



최유미 대외협력처장은 “20대부터 50대까지 전국 각지의 동창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주셨다. 모처럼 쉬는 날인데 모교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보다 많은 동문들이 학교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대외협력처 카톡플러스 친구를 다른 동창에게도 소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창 소모임 지원 캠페인 ‘모여라 이화동창, 이화가 쏜다!’

대외협력처가 동창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연말 동창 소모임 지원 캠페인 ‘모여라 이화동창, 이화가 쏜다!’에 올해도 이화동창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했다. 이 행사는 추첨을 통해 연말에 모이는 이화동창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졸업생 4인~10인으로 구성된 소모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18년 11월 7일~12일 동안 진행된 올해 행사에는 무려 662개 모임이 신청, 그중 100개 모임을 선정해 총 585개의 기념품을 보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부응하고자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창 소모임 후기 이벤트를 추가 진행, 베스트 후기에 선정된 총 3팀의 소모임 전원에게 ‘2019 이화플래너’를 선물했다.



2018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2018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지난 2018년 11월 1일(목)~4일(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Nothern Lights’를 주제로 열렸다. 김혜숙 총장은 김훈순 대외협력처장과 토론토를 방문하여 북미주 지역 35개 지회에서 모인 약 350명의 동문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스크랜튼 여사의 3대, 4대손 모녀가 참석해 동창회의 의미를 더했다. 북미주 동문들은 모교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학교 발전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으며, 그 마음을 모아 김혜숙 총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화행사에서는 신·구세대가 참여한 플래시몹을 비롯하여 한국무용, 춤, 노래 등의 무대로 꾸며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8 아시아동창지회 모교 방문



아시아동창지회 11명이 2018년 11월 26일(월)에 모교를 방문했다. 오전 무용채플 참석을 시작으로 ECC B4층 도너스월 투어와 총장 초청 오찬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이화역사관과 신축기숙사 투어가 진행됐다. 특히 ECC 도너스월 관람에서는 후원자 본인의 이름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는 등 모교 후원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저녁에는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2018 이화인의 밤’에 참석해 이화인의 끈끈한 정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보냈다. 정도경 홍콩지회 회장은 “모교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본, 북경, 홍콩지회의 동문들이 처음 만나 단합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고정희 일본지회 회장은 “매우 즐겁고도 뜻깊은 이화의 날이었다”면서 “이번 모교 방문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지회 동창들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내년 2019년 9월에 북경에서 다시 연합모임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이화의 비전
당신과 함께 꿈꿉니다

이화는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지성’의 비전하에 중점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모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발전기금은 이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여성교육을 선도해온 이화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테크노 이화’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그 도전의 길을 함께 걸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화는 더 높은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장기발전

이화미래전략기금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 4차산업혁명을 이끌 융·복합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내외 대학 간 무한경쟁 등 최근 대학 경영환경은 이전과는 다르게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미래교육에 대한 가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화미래전략기금은 이화가 미래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지성’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영전략기금으로, 이화가 세계를 새롭게 창안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기금용도

- 학교의 비전 및 발전계획에 따른 최우선사업에 사용하는 기금

교육인프라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에 최적화된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은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첨단 학습기자재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공간이 사고를 확장한다는 믿음으로 미래형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첨단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진화하는 첨단 미래형 교육현장에서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미래 여성인재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기금용도

- 노후화된 건물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 학습기자재 및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 향후 이화의 미래형 캠퍼스 구축 계획에 따른 건물 신축 등

연구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노·바이오 기술 등 모든 과학기술과 지식정보 분야에 걸친 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이화의 교수·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이화가 4차산업혁명을 이끌 선도적인 연구 중심대학으로 성장하도록 투자하는 기금입니다. 이화의 우수 연구활동 지원과 미래 학문분야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기금용도

- 우수 연구 교원 및 석좌교수 지원
- 미래지향적 학문분야 개척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

대학(원) 발전

단과대학기금

단과대학기금은 각 대학 및 학과, 전문·특수대학원, 부속기관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중·단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우선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금용도

- 단과대학 및 대학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특수대학원 지원
- 각 전공별 연구 분야 지원
- 직·부속기관 및 연구기관 지원
- 단과대학 건물 신·증축 지원
- 학생활동 지원

이화여자대학교 장학기금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자랑스러운 이화로
커가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우수한 국내외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계의 인재를 이화로 유치하고, 이화의 학생을 당당한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뜨겁게 이어지는 선배의 사랑, 이화의 후배들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이화로 커가겠습니다.

EGPP 장학금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EGPP)은 이화여자대학교가 개발도상국 출신의 여성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시작한 여성인재 특별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1886년 이화의 시초가 된 여성교육을 시작한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도전과 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이화가 축적한 교육역량을 세계 여성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 여성인재들을 선발해 본교 수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체류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학교와 후원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 학생을 글로벌 여성 리더로 키웁니다.

후원금액 한 학생당 1,000만원 (1년)

※ 후원기간 자유롭게 선택

이화미래설계장학금

이화미래설계장학금은 이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스스로 설계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여성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학금입니다. 성적 및 가계곤란 정도에 제한 없이 학생 개개인의 꿈을 지원하고, 미래 설계 의지를 존중하는 이화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장학금과의 중복 지급 및 등록금 범위 초과 지원이 가능하며 진학, 창업, 취업 등 어느 분야에서나 본인의 미래 설계가 가능합니다.

후원금액 한 학생당 400만원 (1년)

제자사랑 장학금

제자들을 위해 은퇴 5년~10년 전부터 매달 꾸준히 장학금을 적립하여 교수님 명의의 장학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 완납되면 원금은 보존하고 매해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퇴직하신 후에도 교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제자에 대한 사랑을 이화에 영원히 남길 수 있습니다. 급여공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월 납부액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학금 약정액	월 납부금액
은퇴 5년 전	5천만원	약 83만원
은퇴 10년 전	5천만원	약 42만원
	1억원	약 83만원

※ 월 납부금액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목돈으로 수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 중에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명명 장학금

장학금 후원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의 성격 및 지급 대상, 장학금액 등을 후원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후원자의 이름과 뜻을 오래도록 이화에 남길 수 있습니다.

장학금 후원 예우

- 300만원 이상 후원 시 후원자의 성함으로 장학금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 5,000만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화장학후원이사회' 이사로 위촉해드립니다.

이화장학후원이사회

이화장학후원이사회는 동창, 교직원을 비롯해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이화가족이 21세기 한국사회 및 세계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자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 1회 이화장학후원이사회 행사를 개최하여 장학기금 현황을 보고하고, 장학생과 후원자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정기간 2018.6.1. ~ 2019.5.31

발전기금



김순옥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장

정책과학대학원발전기금
5천3백1십만원



김순희
영문 70졸

영어영문학전공 발전기금 외
1억원



박경실
체육 78졸

이화미래전략기금
5천만원



서옥천
조소 81졸

조형예술대학발전기금
1억원



임문규
의학 69졸

의과대학발전기금
5천만원



정소연
국어교육과 교수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1억원



최후자
이영회연합회장

이화미래전략기금
7천만원



홍명숙
자연솔씨 대표

이화미래전략기금
5천만원

오투기합태호재단
OTTOGI HAM TAIHO FOUNDATION

(재)오투기합태호재단

식품공학과 첨단실습실
건축기금 외 1억2백만원



(주)모터원
손혜경 부사장

이화미래전략기금
5천만원



(주)이화유니폼
서기분 대표

이화미래전략기금
1억원



이화국제재단

Pfeiffer Fund 기금 외
19만5,716달러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46기

이화미래전략기금
6천만원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47기

이화미래전략기금
6천만원



창원이화약국
대표 김명숙(약학 87졸)

약대건축기금 외
5천만원



총 동창회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1억5천만원

이화가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화의 모습으로 후원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장학기금



김명숙
무용과 교수

김명숙장학금
7천만원



김정옥
독문 69졸

김정옥 하계어학연수장학금 외
10억5백만원



배예현
영문 62졸

배예현장학금
1억원



유중근
영문 67졸

경원문화재단장학금
5천6백6십만원



이현숙
의학 80졸

아이들세상의원장학금
1억원



전희송
의학 87졸

EGPP전찬화장학금
5천만원



전희영

EGPP전찬화장학금
5천만원



최유미
디자인학부 교수

최유미장학금 외
6천3십6만원



현정옥
간호 67졸

최신실장학금 외
8만달러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EGPP UB장학금 외
11만달러



남춘재단
고문 이주영(영문 75졸)

남춘장학금
1억원



대학교회

대학교회장학금 외
5천9백4십만원



삼성꿈장학재단

EGPP(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6천1백6십만원

원은경	윤유정	이미경	이슬기	이윤진	이지상	이현주	임한희	전수정	정오훈	조아리사	차현진	최윤정
원정현	윤은주	이미경	이슬기	이윤하	이지선	이현주	임현진	전영미	정원경	조아영	차혜숙	최윤희
원주연	윤자경	이미련	이슬비	이윤희	이지수	이현주	임혜란	전오연	정유진	조영미	차혜원	최윤희
원현정	윤정숙	이미령	이슬비	이윤희	이지애	이현지	임혜린	전 원	정운경	조영주	차희원	최은경
원혜성	윤정연	이미숙	이슬희	이윤희	이지연	이현지	임혜순	전유선	정윤정	조영지	차희자	최은봉
원희정	윤정은	이미애	이승구	이은경	이지연	이현지	임혜진	전은솔	정운조	조영희	채명숙	최은영
유가환	윤정필	이미원	이승미	이은경	이지연	이현지	임혜진	전지연	정윤희	조영식	채설아	최은정
유경은	윤정혜	이미희	이승민	이은미	이지연	이현희	임희선	전지원	정은경	조윤선	채성령	최은정
유경하	윤지수	이민경	이승연	이은선	이지연	이혜경	임희진	전지원	정은경	조윤영	채연희	최은지
유경희	윤지연	이민정	이승은	이은엽	이지연	이혜경	장강덕	전진희	정은숙	조윤정	채희선	최은진
유금혜	윤혜성	이민정	이승은	이은영	이지영	이혜경	장길효	전청림	정은숙	조윤정	천미영	최은혜
유남수	윤혜성	이민지	이승현	이은재	이지영	이혜규	장명진	전현선	정은영	조은미	천지인	최은희
유니은	윤혜숙	이민진	이승희	이은정	이지원	이혜련	장 미	전혜림	정은주	조은아	천현정	최은희
유다현	윤혜원	이보람	이승희	이은정	이지원	이혜리	장병천	전혜진	정인숙	조은정	천현주	최의숙
유동원	윤혜준	이보람	이시연	이은정	이지원	이혜미	장서진	전혜진	정정혜	조은정	천혜정	최이영
유 리	윤호진	이보름	이아름	이은주	이지윤	이혜민	장서희	전효경	정종우	조은지	최경순	최이진
유 미	윤희영	이보은	이아영	이은주	이지윤	이혜선	장상원	전희경	정주아	조인영	최경희	최인경
유미경	윤희정	이보화	이아영	이은지	이지윤	이혜선	장상은	정경민	정주은	조장은	최경희	최인정
유미금	은지원	이상영	이양준	이인영	이지은	이혜선	장세정	정경진	정지영	조정의	최남순	최재원
유미영	이가영	이상은	이영경	이인경	이지은	이혜숙	장수미	정광준	정지원	조주연	최다영	최재희
유보금	이강민	이상은	이연규	이자경	이지은	이혜순	장수희	정다우리	정지은	조주희	최대석	최정숙
유선영	이강호	이상현	이연승	이자혜	이지은	이혜승	장아름	정다은	정지희	조지희	최두리	최정순
유선자	이건정	이상화	이연우	이장미	이지은	이혜승	장영미	정다희	정진아	조하영	최명화	최정옥
유설희	이경민	이새롬	이연정	이재경	이지은	이혜선	장영은	정덕순	정찬근	조한나	최미경	최정원
유성숙	이경숙	이선민	이연주	이재민	이지은	이혜원	장원희	정덕유	정하린	조현경	최미경	최정원
유세경	이경숙	이선빈	이연주	이재연	이지은	이혜윤	장원희	정 란	정하림	조현경	최미나	최정윤
유송화	이경은	이선아	이영란	이재영	이지현	이혜은	장유림	정미경	정혜영	조현전	최미영	최정윤
유수미	이경자	이선연	이영림	이재옥	이지현	이혜자	장유빈	정미경	정현주	조현주	최미진	최정희
유승연	이경재	이선영	이영숙	이재현	이지혜	이혜진	장유진	정미라	정현진	조현주	최빛나	최주리
유승연	이경화	이선우	이영숙	이재화	이지혜	이화진	장유진	정미경	정현희	조혜경	최상진	최주영
유신애	이경화	이선형	이영은	이재희	이화희	이화진	장윤경	정민경	정현희	조혜림	최선미	최주은
유영희	이경후	이설영	이영임	이정민	이지혜	이효겸	장윤선	정민선	정혜미	조혜순	최선민	최주희
유은미	이경희	이성례	이영주	이정번	이지혜	이훈주	장윤숙	정민영	정혜선	조혜주	최선영	최지선
유은정	이경희	이성숙	이영지	이정수	이지혜	이희영	장윤영	정민지	정혜선	조희진	최성희	최지연
유재영	이계정	이성유	이영희	이정애	이지희	이희영	장윤경	정버금	정혜원	좌경미	최성희	최지예
유정선	이계호	이성은	이예경	이정원	이지희	이희정	장은정	정보경	정혜원	주경미	최수경	최지예
유지선	이공주복	이성기	이예원	이정윤	이지희	이희정	장의영	정사강	정혜진	주미련	최수영	최지원
유지아	이국화	이소라	이예진	이정은	이지희	이희진	장정임	정서연	정혜진	주민경	최수임	최지하
유지원	이국희	이소라	이예진	이정인	이 진	임경중	장정희	정서윤	정호인	주선경	최수진	최지향
유채섭	이귀영	이소라	이윤분	이정임	이진민	임다혜	장지매	정서진	정호진	주선미	최수현	최지현
유 현	이규민	이소라	이용선	이정자	이진성	임서희	장지영	정선영	정희경	주소영	최수현	최지혜
유현영	이근주	이소명	이용주	이정진	이진성	임선민	장지윤	정선영	정효정	주연화	최숙자	최지혜
유현정	이금자	이소민	이운경	이정현	이진영	임성은	장지은	정선자	정효정	주옥경	최순용	최진아
유혜리	이금진	이소민	이원영	이정혜	이진영	임수연	장진경	정설희	정희진	주은선	최승민	최진자
유혜원	이기연	이소연	이위경	이정화	이채영	임수영	장해정	정성민	정희진	주재본	최승은	최진호
유희경	이나니	이소영	이유경	이정화	이채희	임수영	장현숙	정성애	조경선	주현정	최승현	최한나
유희정	이나래	이소영	이유미	이정희	이충희	임승윤	장현숙	정성은	조기영	주현진	최승희	최한별
윤정혜	이나래	이소은	이유정	이정희	이태숙	임애서	장혜숙	정성철	조문영	주희선	최여희	최현숙
윤귀원	이난숙	이소정	이유진	이제진	이태희	임연규	장혜영	정세진	조미진	지선하	최연미	최현숙
윤기명	이난영	이소현	이유진	이종민	이파라	임영실	장혜윤	정소영	조민서	지연주	최연숙	최현정
윤명인	이남경	이슬희	이유진	이종수	이하늘	임원정	장호영	정송희	조민희	지용민	최연지	최현주
윤문선	이남희	이수경	이윤경	이종원	이하영	임윤지	전가영	정송희	조복희	지태원	최영란	최형인
윤샘이나	이다빈	이수경	이윤경	이종철	이해나	임은경	전경령	정수연	조빛나	지연아	최영신	최혜련
윤석애	이다솜	이수민	이윤구	이종희	이해경	임은빈	전동호	정수정	조상희	진수지	최영심	최혜린
윤석완	이덕희	이수연	이윤례	이주연	이해숙	임은영	전루민	정순희	조성민	진연주	최영진	최혜영
윤성원	이도란	이수연	이윤선	이주연	이향운	임은지	전미경	정승재	조성준	진영신	최예니	최혜원
윤소윤	이동은	이수연	이윤숙	이주연	이향운	임은지	전미경	정연재	조성준	진유진	최예진	최혜원
윤수진	이동훈	이수정	이윤숙	이주연	이현숙	임은희	전민아	정연주	조성화	진혜지	최옥경	최혜원
윤수현	이두나	이수정	이윤아	이주은	이현옥	임은희	전민아	정연주	조성환	프노다기미	최원정	최혜순
윤승혜	이 라	이수지	이윤정	이주현	이현정	임재향	전민지	정연주	조수인	차민아	최원주	최희숙
윤여정	이령아	이수진	이윤정	이주현	이현정	임정은	전병혜	정연화	조수진	차선신	최유진	최희순
윤여진	이림경	이수현	이윤정	이주형	이현주	임정희	전보영	정영숙	조수형	차성애	최 윤	최희연
윤영옥	이명숙	이숙영	이윤정	이주혜	이현주	임지영	전상희	정영진	조수희	차순자	최윤경	최희정
윤예지	이명희	이숙희	이윤주	이준경	이현주	임지영	전상희	정예은	조숙자	차영란	최윤숙	최희화
윤오순	이명희	이순재	이윤주	이준성	이현주	임지혜	전순미	정예진	조아라	차인순	최윤영	최정아
윤유정	이명희	이 슬	이윤지	이지민	이현주	임진아	전수련	정예진	조아라	차주희	최윤정	추지선

탁진실	허수경	황정희
태지영	허애영	황중찬
편지애	허애임	황준호
표영희	허예상	황지민
표지은	허예원	황지은
표현지	허유진	황초후
피명선	허은영	황현주
피혜림	허은한	황혜경
하누리	허정원	황혜선
하민경	허정윤	황혜정
하선영	허정인	황희영
하우정	현인애	
하유림	현지숙	
하은희	혜 민	
하정희	호유진	
하지연	홍경복	
한가윤	홍경희	
한경선	홍기숙	
한경아	홍미혜	
한경원	홍복례	
한경화	홍빛나	
한경희	홍산수	
한기정	홍서연	
한도현	홍서영	
한미라	홍선은	
한미영	홍선희	
한미진	홍성희	
한민정	홍수연	
한수경	홍순애	
한승희	홍승렬	
한아란	홍승애	
한아름	홍승연	
한아름	홍승희	
한영원	홍승희	
한유진	홍연기	
한유진	홍영미	
한윤정	홍영승	
한은아	홍영주	
한은영	홍원정	
한은옥	홍유빈	
한은지	홍은아	
한인대	홍은화	
한정미	홍자영	
한정혜	홍정연	
한지수	홍정희	
한지수	홍주현	
한지희	홍지아	
한진순	홍지연	
한진영	홍지영	
한혜기	홍지은	
한혜리	홍혜진	
한혜영	홍희정	
한혜주	황경수	
한혜준	황나영	
함경희	황미경	
함고운	황보경	
함미란	황상옥	
함연수	황선주	
함영림	황소영	
함예슬	황순하	
함주리	황영미	
허경숙	황은미	
허두리	황이숙	
허소영	황인경	
	황정아	

기업 및 단체

1억원 이상

(재)오투기함태호재단
(주)이화유니폼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남촌재단
이화국제재단
총동창회

5천만원 이상

(주)모터원
대학교회
삼성공작학재단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46기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47기
창원이화약국

3천만원 이상

ACE아카데미 5기
뉴욕지회
송원 김영환 장학재단
이대ALPS동창회
진현역, 송미연

1천만원 이상

(주)라우러스
(주)우리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현재저학원
ALPS 합창단
Southern California지회 동창회
고산금 스튜디오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발전후원이사회
나우회
디트로이트 지회
문주장학재단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nited Methodist Women)
보스톤지회
샌프란시스코지회
세기HE
시카고지회 동창회
아틀란타동창회
약대동창회선교부
약대동창회 주홍장학회
약학과 19기
워싱턴 D.C. 동창회
윌버커뮤니케이션
음악대학동창회
이대정신건강의학과 동문회 (이정희)
재단법인 오일홍재단
재단법인 투엘재단
조형예술대학 아트페어
주식회사 잇츠한불
주식회사 자연인
클리블랜드지회
토론토지회
통역번역대학원 교수일동
한국술메이서비스 주식회사
휴스턴지회 동창회

3백만원 이상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
(주)오티스타
ICSF(International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The Blue Lake Company
국어국문학과 20기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은평교회
사범대학동창회
사회과학대학 동창회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약학대학 70회 졸업생 일동
엔에이치엔애드(주)
연당장학회
염산교회
영학회
오스팀 임플란트(주)
이대노동조합
이대부속 초등학교 28회 동창회
이대약대제약인모임
이화민주동우회
일곡문화재단
재단법인 DB김준기문화재단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
조형예술대학동창회(녹미희)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특수교육과 동창회
해태제과식품(주)

1백만원 이상

(재)미연합감리교회세계선교부유지재단
(주)우리은행
(주)크라운제과
(주)태원엠케이
(주)티피치과기공소
Folk Dance&Line Dance동호회
LA Young Nak Church Alumnae
갈릴리교회
경동교회
동북오하이오 지회
디자인대학원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사회복지대학원동창회
상하이화문동회
센트바이
수학교육과 동창회
시애틀 동창회
양서원출판그룹
의류직물학과 동창회
이화MBA총동문회
태린약국
한티미디어

1백만원 미만

(주)아모레퍼시픽
곡성연세의원
김연김동시흥연구회
부천이화약국
사학과 21기
상신기공
예림회
이앤영스킨
진해지회



후원자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는 공간 이화도너스월 (Ewha Donors Wall)

이화여자대학교 ECC 지하 4층은 이화의 대표적인 소통과 만남의 공간이다.

공연장과 대형홀, 레스토랑과 카페, 꽃집과 서점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에는 이화의 또 하나의 명소가 있다. 바로 후원자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화도너스월 (Ewha Donors Wall)이다. 학교에 따스한 사랑을 나눠준 모든 후원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곳은 이화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공간이다.

아날로그월 Analogue Wall

아날로그월은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위한 특별 예우 공간이다. 기부자의 이름은 고급스럽고 견고한 스틸 명패에 새겨지며, 후면에 설치된 조명으로 인해 빛으로 이름을 새긴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기부금액에 따라 블록의 크기와 돌출 정도를 다양화하여 조형적으로 배치 하며, 1년에 한 번씩 납입 현황에 따라 명패를 신규 제작하여 업데이트하고 있다.



디지털월 Digital Wall

디지털월은 작은 후원도 소중히 생각하는 이화의 정신을 담아 모든 후원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키오스크(KIOSK)와 연동되어 있어 기부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대형 화면에 후원자의 이름이 아름다운 배꽃 모션그래피로 구현된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의 경우, 사진과 기부스토리 영상을 함께 수록하여 후원자의 소중한 뜻을 이화에 남길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공통 예우

- 후원 감사카드, 모바일 생일축하카드 발송
- 이화도너스월(디지털월)에 이름 남김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총 약정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부연도에 1회 제공)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특별 예우

2019년 3월 현재

예우 내용		밀알 (3백만원 이상)	나눔 (1천만원 이상)	섬김 (5천만원 이상)	**Ewha Honors Club		
					이화 美 (1억원 이상)	이화 善 (3억원 이상)	이화 眞 (10억원 이상)
후원자 이름 남김	장학기금 명명	●	●	●	●	●	●
	건축기금 후원 시 후원자 기념판 등재	●	●	●	●	●	●
	건축기금 후원 시 후원기념 현판 부착			●	●	●	●
	이화도너스월(아날로그월)에 이름 남김*				●	●	●
인터뷰 예우	후원 공간 명명					●5억원 이상	●
	이화소식, 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기부기사 게재			●	●	●	●
특별 초청 및 위촉	이화도너스월(디지털월)에 인터뷰 수록*				●	●	●
	장학후원이사회 이사 위촉 및 행사 초청			●	●	●	●
	이화아너스클럽 회원 위촉 및 특별행사 초청**				●	●	●
	창립기념 총장공관 오찬 초청			●	●	●	●
무료 이용 (1가구/기업 당 1건)	기금전달식 개최				●	●	●
	도서관 무료 대출증*	●	●	●	●	●	●
각종 감사 예우	학교 무료 주차증				●	●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	●3년간	●	●	●	●	●
	학교 소식지(이화소식) 발송	●	●	●	●	●	●
	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발송		●	●	●	●	●
	창립기념 후원자 감사패 증정*		●	●	●	●	●
	신규후원 감사선물 및 감사장 증정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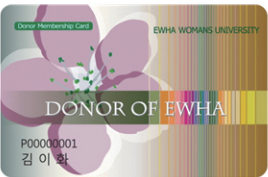
- ▶ * 표시된 예우는 납입액 기준으로 예우해드립니다.
- ▶ **Ewha Honors Club(이화아너스클럽)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업에 총 1억원 이상 후원자(2006년 이후 약정이 있는 후원자에 한함)에게 자격을 드리며, 최소 약정액의 20%(2천만원) 이상 납입 시 특별 예우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 ▶ 도서관 대출증 및 학교 주차증 발급은 대외협력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수정되는 예우 내용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giving.ewha.a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원 및 학교시설 이용 예우

예우 내용		밀알 (3백만원 이상)	나눔 (1천만원 이상)	섬김 (5천만원 이상)	**Ewha Honors Club		
					이화 美 (1억원 이상)	이화 善 (3억원 이상)	이화 眞 (10억원 이상)
의료원*	건강검진	본인 및 배우자	15%	30%	40%	50%	80%
	직계 존비속		—	20%	30%	40%	60%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금)	본인	5%	15%	20%	30%	40%
		배우자	—	—	—	10%	20%
	영안실 이용	본인	—	5%	10%	20%	50%
		배우자	—	—	—	10%	20%
학교시설	외래, 입원 우선권		—	●	●	●	●
	국제기숙사	본인	—	50%	50%	50%	50%
	고사리 수련관, 금란서원	본인 및 직계	5%	15%	30%	50%	50%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본인	10%	40%	50%	50%	50%
	색채디자인연구소	본인	10%	10%	20%	20%	20%
	언어교육원	본인	—	20%	50%	50%	50%
	ECC 피트니스센터, 체력단련실	본인	—	—	—	50%	70%

- ▶ * 의료원 및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이용은 납입액 기준으로 예우해드립니다.
- ▶ 의료원 원무과 및 해당 학교시설에서 후원자 ID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예우 내용을 확인해주시시오.
- ▶ 기공료(보철료) 및 진료재료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영안실 이용료는 염색료, 안치료, 빈소임대료, 수시 및 제반 용역비, 청소료를 말합니다.
- ▶ 진료비 감면(본인부담금) 할인율은 외래진료와 연간 180일 이내 입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 색채디자인연구소 수강료 할인: 색채디자인 전문가 인증교육과정, 전통색채·민화연구 교육과정 해당

후원자 ID카드 할인혜택



- 학교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후원자 ID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수정되는 할인 내용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giving.ewha.a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할인혜택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박물관 기념품샵(10%), E-feel(5%), 도예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케세이호(10%), 닥터로빈(5%), 리치몬드(5%), 카페 블루팻(5%), 교보문고(5%), Soho&Noho(15%), 구내안경점(10~20%), 링크(10%)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안내

이화에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부 참여방법과 세제혜택을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이화여자대학교의 비전 실현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방법

01 오른쪽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신청서 작성 후,
문자 송부 신청서를 사진 찍어, 휴대폰 문자 1666-0531로 사진 전송
팩스 송부 신청서를 잘라, 팩스번호 02-392-3473으로 송부



02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약정
홈페이지 <http://giving.ewha.ac.kr>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후원금 납부방법

- 01 무통장입금 신한은행 100-033-217196 (예금주: 이화여자대학교)
- 02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서 작성 시 거래은행명, 통장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재하여 자동납부
- 03 급여공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

참여방법

해외 참여방법

01 미주지역
미주지역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으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ddres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475 Riverside Drive #1505, New York 10115
Tel (212) 864-5759 Fax (212) 864-2552 E-mail ewhafdn@gmail.com
담당자 송지예(Ji-yei Park, Executive Director)

02 기타 해외지역

약정서를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Bank Name Shinhan Bank Account No. 100-033-217196
Account Holder Ewha Womans University Swift Code SHBKRRSE
Bank Address 20, Sejong-daero 9-gil, Jung-Gu, Seoul, 04513, Korea

개인기부(개인·개인사업자·단체)

이화여자대학교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적용)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기부(주식회사·법인·단체)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 등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거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후원 안내 및 상담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에 관해 궁금한 내용 어떤 것이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종류 문의 - 발전기금, 장학기금, 단과대학기금 등
•기부유형 상담 - 현금, 부동산, 주식, 유산기부, 공익신탁 등
•기타 후원금 납부방법 안내 및 변경, 후원자 예우프로그램 등

문자문의 1666-0531 전화문의 02-3277-2927, 3969 이메일 ewha21@ewha.ac.kr

기부자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신청서

기부자 정보

이름 ☐ 익명 희망			생년월일		
기부금영수증 ☐ 신청	성명(상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자택 ☐ 직장)				
	전화 (자택)		(직장)		
	휴대전화		E-mail		
직장 정보	직장명	소속		직위	
본교 관계	☐ 동창 (전공 :)		입학/졸업년도 ()		
	☐ 교직원 (소속 :)		☐ 이화가족		

약정 정보

	일반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이화사랑 소액정기후원 기금	
기부 용도	☐ 이화미래전략기금	☐ 장학기금 (기금명:)		☐ 이화해피펀드	[학생복지]
	☐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	☐ 단과대학/기관기금 (기금명:)		☐ Ewha Wave 기금	[학교발전]
	☐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			☐ 선배라면장학금	[장 학]
후원 금액	금 원 (₩)			※ 1구좌: 월 1만원 ☐ 1구좌 ☐ 3구좌 ☐ 5구좌 ☐ 10구좌 ☐ 기타()구좌	
납부 기간	☐ 일시납	납부예정일: 년 월 일			
	☐ 분납	분납 금액: ()원 / 분납 횟수: ()회			
납부 방법	☐ 자동이체 (CMS)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_____ •이체일자 ☐ 15일 ☐ 30일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뒷면)			
	☐ 무통장입금	신한은행 100-033-217196 (예금주: 이화여자대학교)			
	☐ 급여공제	이화여대 교직원의 경우, 급여일(25일)에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매월 12일 이후 약정은 다음달 급여일부터 공제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적용)
- 기부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상단 '익명 희망'에 v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v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우 동의	예우선물, 예우카드, 홍보책자, 이메일, 문자 수신 및 기부자 명단 게재 등
--------------------------------	--

※ 문의 대외협력처 Tel 02-3277-2927, 3969 문자수신번호 1666-0531 Fax 02-392-3473 E-mail ewha21@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